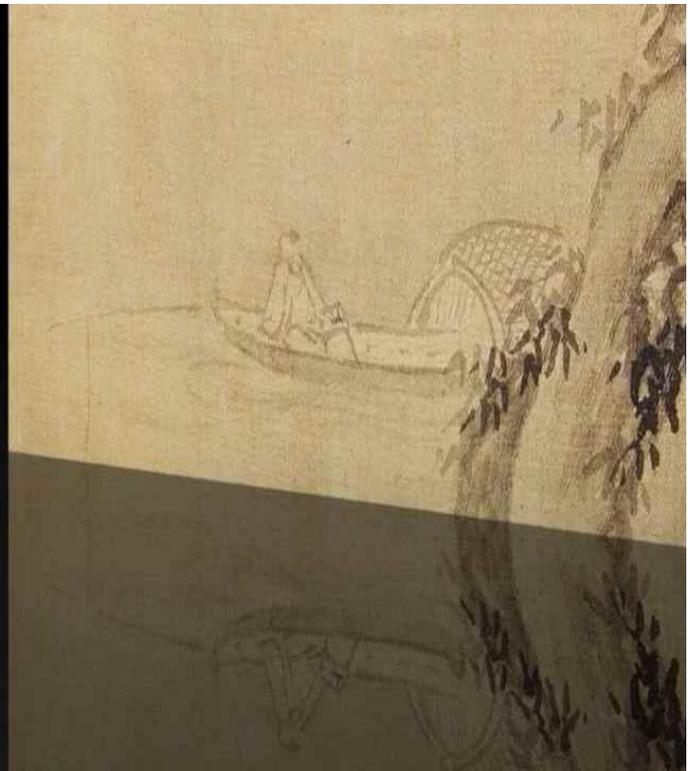


### ■ 영상택배 시즌2 - <선비의 길>, 보길도에서 만나는 윤선도

#### 윤선도, 그는 누구인가?

시, 그림, 음악에 조예가 깊었던  
천재적인 예술가  
어부사시사, 오우가 등  
한글시조를 지은 시조작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해야 했던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  
평생 3차례, 총 20여년의 유배생활  
병자호란 때 왕을 알현하지 않고  
함께 피난가지 않았다고 유배가기도 함



이번 호 뉴스레터와 함께 전해드리는 영상택배는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제작한 역사탐방 프로젝트 <선비의 길>입니다. 보길도에 스물 다섯채의 건물과 정자를 지었던 조선 최고의 풍류처사 고산 윤선도의 삶을 찾아 직접 전남 완도군 보길도를 찾아 나선 영상입니다. 계속된 감염병 사태로 역사와 문화를 찾아 나서지 못하는 아쉬운 현실을 영상으로나마 달래시길 권해드립니다.

동화의 세계 순례(4)

하이디의 향수병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전임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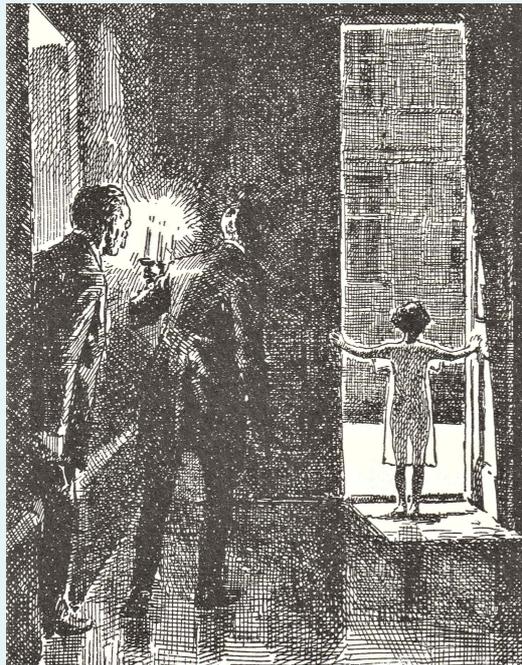


하이디가 할아버지와 함께 지낸 고원, 뒤로 보이는 산이 매봉이다.

고원 풀밭과 전나무 숲 그리고 양들은 하이디에게는 신나는 놀이동산이었고 할아버지는 하이디의 순진무구한 동심에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모 데테가 나타났다. 지난번에는 하이디를 할아버지에 떠넘기듯 하고 떠났는데, 이번에는 데리러 온 것이었다.

이를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할아버지에게 이모는 “아재, 프랑크푸르트에 엄청난 부잣집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그 집에는 다리가 성치 못한 딸이 있는데, 그 딸의 말동무 겸 시중 들어 줄 여자 아이를 찾고 있대요. 그 아이는 때 묻지 않은 개성 있고 순수한 심성을 가진 아이라야 한다가에, 하이디가 안성맞춤이라 생각되어 데리러 왔어요.” 라며 장황하게 수다를 떨었다.

이에 할아버지는 호통을 쳤지만, 이모는 반 강제로 하이디를 끌고 산을 내려갔고 프랑크푸르트의 부자 제제만 씨의 집으로 데려갔다. 얼떨결에 끌려간 하이디는 큰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하이디는 하루 종일 휠체어에 의지하고 살아야하는 그 집 딸 클라라를 돌보며, 시중같이 지냈다. 사람들은 그런대로 괜찮아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하이디는 날이 갈수록 알프스가 그리워졌다. 어린 소녀에게 알프스의 그리움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하이디는 몽유병 증상으로 한 밤중에 집안을 돌아다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급기야 귀신 소동 사건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이 터진 후에야 하이디는 의사선생님께 속을 털어 놓게 되었다.

의사 선생님은 하이디에게 물었다. “하이디야, 밤에 어디로 가려 했던 게냐?” 그러자 하이디가 말했다. “의사선생님, 어디로 가려고 한 적 없어요. 저도 모르는데, 거기 서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밤 똑 같은 꿈을 꾸요. 할아버지 집에 있는데, 밖에서 싸싸하고 전나무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저는 달려가 문을 열면 하늘의 별들이 아름답게 속삭이고 있어요. 그런데, 눈을 뜨면 여전히 프랑크푸르트예요.”

하이디의 속마음을 들은 의사 선생님은 집주인 제제만 씨에게 말했다. “제제만, 잘 듣게나. 자네가 데리고 있는 꼬마 아이는 몽유병을 앓고 있네. 매일 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처럼 대문을 열고 식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지. 향수병이네. 어서 손을 써야 하네! 방법은 딱 한가지 밖에 없어 아이를 당장 고향 알프스의 공기 맑은 산속으로 돌려보내야 하네. 이것이 내 처방일세!



의사 선생님의 처방 덕분에 하이디는 꿈에 그리던 알프스로 돌아왔다. 하늘 위로 장미처럼 붉은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파란 풀밭은 금빛으로 물들고 온 천지가 향기로운 들풀 냄새로 가득했다. 하이디는 오두막 앞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실로 오랜만에 할아버지의 눈가가 축축이 젖었다.



하이디를 몽유병에서 건져 준 알프스의 초록 경치, 실제로 전나무 숲에 들어가 보면 하이디가 말한, 바람이 “쌐아 쌐아”하며 전나무를 스치는 소리가 난다.

## ■ 천년 암자에 오르다

### 사모곡이 들려오는 <무척산 모은암> 여섯 번째 이야기 “또 하나의 천지”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천지 | 못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정확하게는 흘러내린 물이 권 곳이다.

모은암에서 계단을 내려오면, 산더미만 한 바위 앞으로 다시 사적비를 만난다. 알처럼 생긴 둥근 바위를 두 쪽으로 깨고 자란 나무 한 그루도 함께 보인다. 도처에 바위틈이 구멍을 이루기도 하였다.

구멍 안에는 천연덕스럽게 놓인 길쭉한 돌덩이들이 하나씩 보이는데, 남녀의 결합이 절로 연상된다. 그뿐이 아니다. 등산로 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기암괴석들이 줄을 잇는데, 첩첩으로 쌓인 바위들 가운데 하나가 '여근석'이다. 아래쪽에서 보아야 영락없이 그 뒷모습이다. 연화봉의 아래 즈음으로 옛 등산로가 여근석을 뚫고 지나간다. 사람 하나가 겨우 통과할 정도로 좁다.

모은암에서 천지天池를 향하는 길은 1.7km 정도의 거리로 아름답기가 그지없다. 기세등등한 바위 봉우리들의 돌진이 불만하다. 낙남정맥落南正脈이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무척산을 솟아 올렸다.

낙남정맥은 백두대간의 꼬리에 해당한다. 지리산의 영신봉에서 갈라진 낙남정맥은 황치를 넘어 이산, 팔음산, 무량산, 구룡산, 비음산을 지나 불모산을 세운다. 불모산은 구지봉과 웅산 쪽으로 갈라지는데, 이때 구지봉으로 향하던 주맥이 먼저 무척산을 세운다. 그리고는 종당에는 멈추어 서서 분산을 빛낸다.

그토록 머나먼 행보 탓일까? 무척산은 다소 지친 기색이다. 바위들은 차진 맛이 떨어지고 오히려 역세면서도 푸석한 느낌이 돈다. 그렇지만 승전을 알리는 장엄한 행진에 가담한 귀환병처럼 부풀린 몸통에 용맹을 과시하는 표정이다. 이렇게 팍팍한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는 무척산의 높이는 해발 700m다.

모은암에서 정상을 향해 10분가량 오르면 멀리 삼랑진 방향으로 굽어 도는 낙동강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너른 들판이 시원하게 내려다보인다. 등산로 중간에 만나는 '연리지連理枝'는 무척산이 보여 주는 일종의 애교다.

내내 가파르던 오르막길이 순탄해지면서 폭포 하나가 나타난다. 천지에서 내려온 물줄기로 수량은 그다지 많지 않다. 사계절 흐름을 멈추지 않고 등산객들에게 상쾌함을 선사하는 폭포다. 이곳에서는 천지가 멀지 않다.

일반인들에게 천지라고 하면 통상 백두산의 천지를 떠올린다. 그러나 풍수지리에서는 산꼭대기에서 솟아나 권 물을 천지라고 부르니, 한라산의 백록담 역시 풍수지리상의 천지에 속한다. 그렇다면 무척산의 천지도 절로 솟아난 못일까?

전해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 무척산에는 아홉 암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 중 하나가 지금은 사라진 통천사通天寺다. 그런데 천지와 통천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온다.

김수로왕이 승하했을 때의 일이다. 무덤을 조성하기 위해 땅을 파자 난데없이 물이 솟아 나왔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무렵이다. 허황옥을 수행하여 이 땅에 온 신하 가운데 하나인 신보申輔가 지맥을 살펴보더니, 무척산 정상에 연못을 파면 물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였다. 왕릉 터에서 솟는 수맥이 무척산과 이어졌다면 낸 방안이었다. 사람들은 지금의 천지 자리에 호수를 파서 물길을 돌린 다음 무사히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천지 옆에 통천사라는 절을 세웠다. 왕릉 터의 물이 하늘로 통했다고 해서 지은 이름이다.

무척산의 천지는 솟아나 권 물이 아니라 이곳에서 1.2km 떨어진 산꼭대기에서부터 흘러 내린 물로 이루어진 못이다. 꽤 넓기에 한결 시원한 곳으로 잘 자란 소나무들이 천지의 주변을 에워쌌다. 독 앞에는 근래에 꾸민 정자 하나가 산을 찾는 나그네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한다. 정자의 맞은편은 근래에 세운 기도원이다. 지형으로 보아 그 옛날의 통천사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닌가 여겨진다.

무척산의 정상을 지나면, 모은암의 반대편 쪽으로 백운암白雲庵이 나온다. 이곳 또한 장유화상이 불교 중흥을 위해 세운 암자라고 전한다. 김해 지방의 산행객들은 모은암 쪽에서 백운암 쪽으로, 혹은 그 반대 경로로 무척산 넘기를 즐긴다.

**다음 회는 <무척산 모은암> 일곱 번째 이야기 “신화와 역사의 간극”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